

차세대 주력산업화 기술개발(II)

IT융합 인프라 구축

IT융합 인프라 구축 과제이다. 추진배경 및 과제내용에서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의 경우, 추진배경으로 IT융합기술 서비스를 통해 융합 응용 기술을 표준 규격화하여 국제적으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제내용으로 IT기반 융합 분야별 특화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표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융합기술의 조기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의 경우, 추진배경으로 이종 업종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IT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센터 등과 같은 교류협의체 조직이 필요하다. 과제내용으로 주력산업과 IT융합을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점을 발굴하여 포럼운영, 기술로드맵 수립, 통계조사 등 추진한다.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

IT 융합 통계지표 마련의 경우, 추진배경으로 IT융합 정책기획 및 실행을 위한 통계지표가 필요

하고, 과제내용으로 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산업정책수립을 위한 IT융합산업 주요 통계지표를 도출하자는 것이다.

과제목표로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이다. IT+BT, IT+NT, IT+전통산업 표준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지자체와 연계한 서비스모델 시범 적용이다. 그리고,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이다. 매년 2~3개 센터를 지원하여 '12년까지 8~10개 센터를 지원한다. IT 융합 통계지표를 발굴하는 것이다. IT융합 주요 통계지표를 마련(09년)하여 「IT융합산업 통계조사 실시」(10년)를 추진한다.

추진전략 및 방안으로 IT 융합 사업화 기반 조성에서 국책 연구개발과 연계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실시(08~11년까지 총 4년간 173억원 지원)한다.

산업IT융합센터 및 포럼 운영에서 기계, 조선, 섬유, 의료 등 업종별 협회·산업체·대학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센터당 2~3억원 지원(지원기간 2년 이내, 1년 연장가능)하고, IT융합인적교류,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개발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개발의 추진 배경으로 異業種간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반도체는 주력 시스템산업의 핵심경쟁력으로, 주력 시스템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시스템반도체 원천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IT융합 CEO 교육 및 세미나, 성공사례 발굴 및 기술로드맵 작성·과제 도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IT 융합 통계지표 발굴에서 '09년에 IT융합산업 범위와 통계지표 연구(외부용역 발주)를 추진하여 지표를 확정하고, '10년부터 IT융합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IT 융합 통계지표 발굴

추진일정에서 '09년 1분기에 산업IT융합 지원센터 공고 및 기관 선정, 포럼 구성운영과 업종별 IT 융합 장애요인 발굴, 통계생산 용역기관을 선정한다. '10년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단지 연계 지속 추진과 IT융합산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1년~'13년 중 산업IT융합센터 전국 확산, 지역별 특화한다.

IT융합시스템 인력 양성 과제이다.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으로는 IT 융합 인력 양성의 경우, 추진 배경으로 대학 IT연구센터(ITRC) 육성을 통해 IT 및 IT융합분야 프로젝트 수행능력 있는 석·박사

급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과제내용으로 IT기술과 자동차, 조선, 의료 등과 결합을 통해 IT융합 신산업 창출을 이끌어 나갈 분야별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력 양성의 경우, 추진배경으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급인력 양성이다. 과제내용으로 산.학.연 연계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인력 양성이다. 추진일정으로 '09년~'13년 중 매년 6,000명 규모 전문인력 양성으로 4대 분야별 1500명이다.

RFID/USN검증 확산

RFID/USN검증 확산 사업을 들 수 있다. 추진 배경으로는 RFID/USN 분야의 선도적 수요창출을 통하여 국가사회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조기 성공모델 발굴을 통하여 해외 시장까지 선점하는 것이다.

과제내용을 보면, RFID/USN 선도적 수요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물품(조달·국방), 물류인프라

(항만·물류거점), 유통투명화(주류·귀금속·쇠고기), 완제품 물류(의약품·의류) 등 국가 사회 효율성·투명성 제고 및 초기 산업 수요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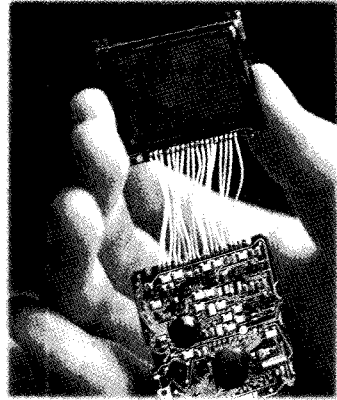
정부물품에서 중앙기관 및 지방청 보유물품에 RFID를 부착하고 신규도입 물품에도 적용 의무화, 항공기 부품 등 주요 군수물자 관리에 도입하고 물품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류인프라에서 항만·고속도로 톨게이트·내륙물류거점을 연결하여 통합 물류를 관리하는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RFID 기반의 협업

유통투명화에서 주류·귀금속 등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고, 수입쇠고기의 이력 추적 관리를 통한 한우로 둔갑 방지 및 위해식품 조기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완제품물류에서 의약품·의류 등 완제품의 제조-물류-판매까지의 전 프로세스 관리 효율화를 추진하는 민간 기업을 매칭 지원하여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RFID 기반의 협업이다. RFID 기반의 대·중소기업간 부품물류 및 업무 효율화 모델 발굴·확산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기업과 다수의 부품협력기업간의 부품물류 관리 및 업무 효율화에 RFID를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

성과지표로 국내 시장 규모를 (08) 5,500억원 → (09) 6,600억원 → (10) 7,900억원 → (11) 9,400억원 → (12) 11,000억원 (08년 대비 2배 성장)으로 증가시키고, 대·중소기업간 협업을 (09) 200개 기업 참여 → (13) 500개 기업 참여 (누적 기준)로 늘린다.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전략으로 RFID/USN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09) 정부물품·물류인프라·유통투명화·완제품물류 등의 RFID 수요 확대 → (13) '08년 대비 RFID 시장 규모 2배 이상 확대한다. (09) 물류인프라·지자체 RFID 수요 확대 → (13) 물류인프라 적용 지역 '08년 대비 4배 이상 확대, 지자체 확산 및 의무화 등 추진한다. (09) 민간주도의 완제품 물류분야 3~4개 적용 → (13) 민간주도의 완제품물류분야 20개 이상 확산한다. 그리고, 대·중소기업간 RFID 기반 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이다. 추진 배경으로 법제도 개선을 통해 IT융합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시장 확대유도, 활용촉진근거, 인증체계 및 활성화 저해요소 정비, 규제의 전략적 활용 추진 등이다. 항만 컨테이너에 대한 RFID 부착 의무화와 국가기관 보유물품 10,000점 이상 조달물품 관리에 RFID 도입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추진일정은 법제도 개선사항 지속발굴 및 기발굴 과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